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열일곱째 숫자

둘째 화 — 제4부

Jeff Pippenger

2026-06-25

627, 632 및 637

무저갱을 여는 “열쇠”는 니네베 전투이며, 이는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기 5년 전인 627년에 성취되었다. 5년 뒤인 637년에 무슬림 군대는 니네베 전투에 가담한 두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이 사건은 중동에서의 세력 균형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627년의 니네베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을 약화시켰고, 10년 후 페르시아 제국은 종말을 맞았다.

굴욕—782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한 지 150년 후인 782년의 아바스 왕조 원정에서, 아바스 왕조 군대(전승에 따르면 약 95,000명)는 소아시아(현대의 터키)에 있는 비잔틴 영토를 향해 대규모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한 크리소폴리스까지 진군하여, 비잔틴의 수도에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 황후 이레네의 통치 아래 있던 비잔틴은 중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그 결과 비잔틴은 굴욕적인 3년 휴전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연간 공물(약 70,000~90,000 금 디나르)을 지급하며 비단 의복과 인질들을 넘겨주기로 동의하였다. 이 원정은 8세기 동안 비잔틴 영토에 대한 아바스 왕조의 침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성공적인 것들 중 하나였다. 그것은 아바스 칼리프국의 증대되는 세력과 비잔틴 제국의 계속되는 쇠퇴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

다섯 달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백오십 년에 해당하는 “다섯 달”이 두 번 언급되는데, 한 번은 5절에서이고 또 한 번은 10절에서이다.

또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다만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라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의 괴로움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자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과 같고, 그 머리들 위에는 금 같은 관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전쟁하러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들의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꼬리들에는 쏘는 것이 있어, 그들의 권세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더라. 요한계시록 9:5-10.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150년 예언 기간이 있다. 첫 번째 기간은 632년 마호메트의 죽음으로부터 동로마의 여제 이레네가 굴욕을 당한 782년까지이다. 9장은 이슬람의 등장을 매우 상세한 방식으로 밝혀 준다. 606년 부족들의

통합으로부터, 627년 니스워 전투를 거쳐, 632년 마호메트의 죽음에 이르고, 이어 637년 페르시아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흥망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주의 깊게 추적되어 있다. 아라비아의 이슬람은 고통에 관한 첫 번째 150년 예언에 나타나는 세력이다. 606년 마호메트에 의한 부족들의 통일, 이어 627년의 "열쇠"가 되는 니스워 전투, 그 뒤를 이어 대략 628년경 페르시아와 로마 양국의 멸망에 대한 마호메트의 예언, 그리고 마침내 632년 그의 죽음에 이른다. 이 연대들은 이슬람의 계보 안에 있는 특정한 사건들의 연속을 나타낸다.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은 지 150년 후, 이슬람의 권력 기반은 아라비아에서 터키로 옮겨졌으며, 동로마를 콘스탄티노플까지 완전히 밀어붙였다. 첫째 화는 아라비아의 이슬람을 나타내고, 둘째 화는 터키의 이슬람을 나타낸다. 첫째 화 안에 있는 두 개의 150년 예언은 아라비아의 이슬람과 터키의 이슬람 사이의 구별을 밝혀 주는데, 이는 첫째 화와 둘째 화 사이의 동일한 진리의 구별로 제시된 것과 같다.

첫 번째 백오십 년은 페르시아의 몰락으로 시작하여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안에 갇히는 것으로 끝났다. 두 번째 백오십 년의 기간은 오스만(또는 오트만이라도 불림)의 니코메디아에서의 승리로 시작되었다. 니코메디아에서의 오스만의 승리는 니코메디아 공성전을 가리키며, 이는 1333년부터 1337년까지 오늘날 터키 이즈미트인 니코메디아에서 일어났다. 이때 오스만 베일리크의 창건자 오스만 1세의 아들인 술탄 오르한 가지가 비잔틴의 중요한 도시 니코메디아를 포위하였다. 그 도시는 여러 해 동안 버텼으나, 마침내 1337년에 기아와 보급 부족으로 항복하였다. 비잔틴 수비대는 콘스탄티노플로 철수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니코메디아는 소아시아(아나톨리아)에 있던 비잔틴의 마지막 주요 거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함락은 사실상 서부 아나톨리아 대부분에 대한 비잔틴의 지배를 종식시켰다. 이 승리로 오스만은 비티니아에서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향하여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훗날 오스만의 콘스탄티노플 정복(1453년에, 그로부터 1세기 이상 뒤에 이루어졌다)을 향한 중대한 디딤돌이었다. 이 공성전은 흔히 작은 오스만 베일리크를 부상하는 지역 강국으로 변모시킨 핵심적인 초기 승리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첫째 나팔 안에 있는 두 번째 백오십 년의 기간이 1449년 7월 27일에 끝났을 때, 마지막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의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이슬람 술탄의 허락을 구하였고, 이로써 그는 요한계시록 9장의 두 "다섯 달" 기간 중 첫 번째 백오십 년의 끝에서 이레네 황후가 겪었던 바로 그 굴욕을 당하였다. '이레네 황후'의 굴욕과 또한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의 굴욕은, 둘째 화의 때 예언이 끝날 무렵 오스만이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유럽의 네 강대국에게 도움을 구하였을 때 당한 훗날의 굴욕을 예표하였다.

판테온

선구자들은 다니엘 8장 11절에 있는 "그의 성소의 처소가 헐렸으며"라는 구절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쳤다.

참으로 그가 스스로를 높여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미쳤으며, 그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졌고, 그의 성소의 처소가 헐려 버려졌다.

여기서 확인된 "성소"는 로마 시에 있는 판테온 신전이었고, 그 신전의 "처소"는 로마였다. 로마는 콘스탄티누스가 주후 330년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기로 선택하였을 때 "내던져졌다." 11절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되며, 2절은 동일한 사건들을 지목하고 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이교 로마였으며, 이교 로마는 330년에 수도를 동방으로 옮김으로써 그 권세의 "자리"를 로마 교회에 넘겨주었고, 그리하여 교황 교회가 기꺼이 이용한 권력의 공백을 남겨 두었다. 우리가 동로마의 계보를 330년부터 1453년까지 잡아 볼 때, 동로마에 관한 예언의 시작점에서 로마 시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거부함으로써 굴욕을 당한 것을 보게 된다. 그 굴욕은 고통의 첫 일백오십 년이 끝나는 782년에 황후 이레네와 함께 되풀이되었다. 그 두 굴욕은 모두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반복되었다.

기이한 흥망성쇠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동로마의 몰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슬람의 흥망성쇠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다. 영감은 우리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라고 알려 준다. 그 왕국들은 각기 그 특유의 "흥망성쇠"와 결부된 고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유다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대한 세 차례의 공격으로 초래되었다.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고, 세 차례의 칙령 아래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었으며, 그 칙령들은 2,300년을 시작하게 하였고, 그 기간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역사 속으로 도래하는 세 천사에 이르렀다.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로마는 분해되었고, 그 분해 가운데 로마의 두 측면이 서로나 동로마라는 위치 아래 제시되었다. 다니엘 11장 앞의 3분의 1에 나오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과 셀레우코스 제국의 흥망성쇠는 교황권 로마의 흥망성쇠를 예표한다. 그 증언은 단지 알렉산더와 헬라의 해체 이야기의 결론일 뿐이다. 로마와 달리, 헬라는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가 마침내 둘이 되었다. 로마는 동과 서로 나뉘었고, 그 후 서로마는 예언적으로 셋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로마의 삼중 정부를 나타낸다. 동로마의 경우,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왕국을 그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분명히 서로마와 동로마는 각각 로마 교회와 로마 국가를 대표하는 평행선이다. 그 두 겹의 분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삼중 분할이 있다. 헬라는 넷에서 둘이 되었고, 바벨론은 하룻밤이었으며, 유다는 세 차례의 공격이었다. 이슬람의 경우, 그들의 "흥기"는 "농임"으로 묘사되고, 그들의 "몰락"은 "제지"로 묘사된다.

그들의 부상은 마호메트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들은 1840년 8월 11일에 제지되었다. 그들은 풀려났다가 9/11에 즉시 다시 제지되었다. 그들은 최근 2023년 10월 7일에 다시 풀려났고, 그 이후로 가자에서 제지되고 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표하기 위하여 이슬람은 다시 한 번 풀려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까지에 제시된 이슬람의 예언적 역사의 노선은 셋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예언적 역사를 식별한다. '셋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예언적 역사'는 일곱째 천사이자 또한 셋째 천사에 의해서도 표상된다. 셋째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을 때인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하였다. 셋째 천사와 셋째 화는 9/11에 예언적 역사 속으로 도래하였다.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적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니스워 전쟁의 "열쇠"는 로마와 페르시아라는 두 세력을 이슬람과 직접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로 끌어들인다. 니스워는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가 점진적으로 멸망해 가는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 준다.

헤롯은 용의 상징이며, 그는 로마를 대표하고 있었다. 세상 끝에 이르러 그 용은 국제연합이다. 일요일 법령 때 여섯째 왕국이 무너지고 일곱째가 시작되지만,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탄생 잔치에서 그 왕국을 여덟째 왕국에게 내준다. 일곱째 왕국은 막 태어났으며, 즉시 한 시간 동안 자기 왕국을 바벨론의 음녀에게 주기로 동의하는데, 이는 헤롯이 살로메에게 자기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예표되었다.

미합중국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제연합이 탄생하며, 삼중 연합이 실행된다. 헤롯은 용이며, 헤로디아는 교황권이고, 미합중국은 살로메이다. 헤롯은 불법적인 혼인 동맹 가운데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며, 예언적 차원에서는 살로메와 근친상간의 관계 가운데 있었으니, 그녀가 춤출 때 그가 그녀를 향해 욕정을 품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용은 어머니와 딸, 양쪽 모두와 관계를 맺는다.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가 각각 교권적 술책과 국권적 술책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때,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인 로마는 예언적으로 교황권을 왕좌에 앉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다시 한 번 교황권을 왕좌에 앉히게 될 미합중국을 예표하였다.

서기 330년부터 476년에 이르는 서방 로마의 점진적인 멸망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미국의 점진적인 멸망을 나타낸다. "330년"과 "1798년"은 둘 다 다니엘서에서 "정한 때" 혹은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예언적 이정표들이다. 330년은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의 시작을 표시한다. 두 제국의 종말은 모두 로마 지도자의 굴욕이며, 마치 시작 때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도시를 굴욕시켰던 것과 같다. 476년은 세 단계 아래에서 로마의 명망 높은 정치 구조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언적 기간의 끝이었다. 330년에 그 도시가 거절당함으로 시작된 그 기간에 뒤이어 그들의 전체 정치 구조에 대한 굴욕이 따랐는데, 고대 로마의 주된 자랑거리였던 그들의 영광스러운 공화정은 해체되었고, 마침내 476년에 이르러서는 실제 로마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로마 위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330년에 시작되는 로마의 두 계보와, 그 두 계보가 제시되어 있는 그 구절은, 또한 다섯 달로 이루어진 두 예언적 계보를 포함하고 있다. 서방 로마의 계보는 점진적인 굴욕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인 굴욕으로 끝난다. 동방 로마의 계보도 점진적인 굴욕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인 굴욕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할 허락을 구했던 1449년이 그 끝이다.

다섯 달 기간들 가운데 하나는 예언의 초점으로서 아라비아 이슬람의 종말과 782년에 터키 이슬람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그 날짜에 황후 이레네는 굴욕을 당하는데, 이는 두 번째 다섯 달 예언의 끝에서 마지막 콘스탄티누스가 당한 굴욕과 일치한다. 열다섯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개의 다섯 달 예언이 있다. 하나는 아라비아의 이슬람의 역사를, 다른 하나는 터키의 이슬람을 묘사한다. 둘 다 동로마의 굴욕으로 끝난다. 그 예언들 가운데 하나의 결말은 한 여인이 굴욕을 당함으로써 성취되었고, 다른 하나는 한

남자에 의해 성취되었다. 교훈은 교훈에 더하여, 그것들은 동로마의 교회와 국가의 굴욕을 드러낸다. 두 굴욕 모두 첫째 화의 이슬람에 의해 초래된다. 1449년에 마지막 콘스탄티누스가 당한 굴욕은 1453년에 끝나는 4년의 기간을 시작하는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1449년은 굴욕을 나타내며, 1453년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한 왕국이 끝난다.

무함마드의 죽음

두 번의 오 개월 기간 가운데 하나는 무함마드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는 11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목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사자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들 위에 있는 왕은 무함마드였다. 이는 그가 1절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니, 그는 다른 어떤 이슬람 인물이 아니다. 그는 왕인 무함마드이며, 왕은 곧 왕국이고,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왕국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한 별이 있더라.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갱에서 올라오매, 그 갱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땅의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9:1-3.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셋째 화 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 안에서 반복되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 왕인 마호메트는 무저갱을 열 열쇠를 받았고, 9:11은 셋째 천사가 능력을 부여받는 때를 식별해 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큰 천사로서, 발람의 첫 번째 공격이 예언적 역사 속에 도달하였을 때 내려오셨다. 이어 무저갱이 열렸고, 이슬람은 다시 세계 역사의 한 주제가 되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예레미야의 옛 길들과 셋째 화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다시 인도하셨고, 그 기별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고, 그리하여 세계주의 용의 세력을 자극하였으며, 이어 무저갱은 마침내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트럼프를 죽인 무신론을 풀어놓았다. 일요일 법령 때에, 일곱 중의 하나요 여덟째인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기의 시작과 그 끝은 무저갱 세력의 등장을 식별해 준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있게 될 그 짐승을 볼 때 놀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8

이슬람은 9:11 때 무저갱을 연 열쇠이며, 일요일 법령 때에도 무저갱을 여는 열쇠이다. 인치는 기간의 한가운데서, 세계주의의 용 같은 짐승 또한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1:7.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한 세력의 세 이정표를 모두 여는 열쇠는 이슬람 왕국의 왕 마호메트에게 주어졌다. 627년 니네베 전투는 두 세력 사이의 전투를 나타냈으며, 그 전투는 양 교전 세력의 힘을 소모시켜 이슬람이 급속히 권세 가운데 부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열쇠는 9/11에 돌려졌고 이슬람의 부상이 시작되었으나, 그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지되었다. 니네베 전투는 9/11에서 예표되었는데, 이는 거기서 이슬람의 부상이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고, 또한 사자(使者)를 뜻하는 별도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니네베 전투는 또한 끝에도 예표되는데, 그때 일요일 법령이 이르고 암흑시대의 두 번째 기간이 시작되며, 이슬람 종교의 연기가 해를 가리게 된다.

엑서터

주일법은 자정 외침의 기별이 엑서터 camp meeting에 이를 때 예표된다. 그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최종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된다. 그 우상의 형성, 곧 세워짐은 9/11에 시작되었으나, 그 기간의 끝, 곧 자정 외침의 선포 기간은 또한 9/11에 시작된 우상의 형성 전체 기간의 프랙탈이기도 하다. 시작은 끝을 대표한다. 첫째 화는 셋째 화를 예표하며, 이는 첫째 천사가 셋째 천사를 예표하는 것과 같다. 인치는 시간의 끝에서의 니스웨 전투는 시작에서의 니스웨 전투를 식별하게 한다. 주일법에서의 니스웨 전투는 9/11에 시작된 인치는 시간의 끝이지만, 동시에 자정 외침의 선포 기간의 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니스웨 전투는 자정 외침 선포의 시작에서 예표되며, 이것은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최종 단계들을 식별해 주고, 또 주일법에서 세계에서의 짐승의 우상 형성의 시작이 시작된다. 니스웨는 여러 노선들을 정렬시키는 열쇠이며, 그 노선들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에서 완전한 성취를 발견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더 나아가 살펴볼 것이다.